



미래 향한 도전, 전에 없던 새길

쟁의권 확보,

미래 오롯이 우리 손에

휴가 직후 8.10(월) 화성, 평택, 안양 모비스 3사는 조정신청을 했고 8.19(수) 조정중지 결정이 났다. 올해 교섭의 핵심 쟁점은 **교섭구조 변경**인데, 이는 지노위에서 조정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조정중지의 핵심 이유다. **투쟁의 성격이 전과는 다른 것이다.**

8.25(화), 26(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평택 73.7%, 화성 83% 찬성율로 쟁의권 확보를 마쳤다. 위아안산은 7월에 이미 쟁의권을 확보했다. 모비스안양은 전국 흐름에 맞춰 조정에는 함께 했지만 19년 화성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첫 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이 한참이어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교섭 경과에 따라 투표일정은 판단한다.

쟁의권 확보를 바탕으로 교섭과 투쟁을 함께 판단하며 간다. 교섭구조 변경 등 미래를 향한 새길을 여는 과정은 오롯이 우리 손에, 우리의 힘과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모비스 노사특별공동위원회

진행위한 사전회의의 2차레

5월 경기 4사가 요구한 “중양교섭 집단교섭 참여, 모비스-위아 함께” 요구는 전국적 쟁점으로 번졌다. 모비스 사측은 “모비스-위아 공동교섭 불가”라며 모비스 노사 전국 간담회를 제안했고, 모비스지회들은 “모비스-위아 같이 안 하면 작년 수준과 다를 바 없다. 같은 목적으로 갈라져 나온 같은 모듈사로서 함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휴가 직후인 8월 14일, 전국 모비스 각 사용자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미래대응을 위한 노사특별공동위원회’를 하자고 전국 모비스지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① 재난기 고용안정, ② 미래차 전환기 경쟁력 확보, ③ 감염병 예방, ④미래지향적 노사관계, ⑤ 20년 단체교섭 등을 공동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모비스 각 지회들은 대표자 논의를 거쳐 **재난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모듈부품사 노사특별공동위원회**를 제안했다. 위아 3사(광주, 창원, 안산)의 **원하청 3자 포럼**이 열리는 만큼 모비스 노사도 논의를 진전시키며 모아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8.21(금) 김천에 모여 특별공동위원회의 방식, 구성, 운영, 의제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답했다. 노동조합이 제안한 의제는 ① 모듈부품사(모비스-위아) 공동교섭, ② 미래차위원회, ③ 감염병 예방과 보호, ④ 교대제 개선위원회, ⑤ 20년 모듈부품사 공동요구 총 5가지다.

여기에 더해 공동위원회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김천지회의 현안 해결과 단체협약 체결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렸다.

김천 한 발, 함께 한 발

8.21(금) 모비스김천에서 노사공동위 운영을 위한 1차 사전회의가 열렸다. 모비스 10개사(화성, 평택, 충주, 아산, 천안, 광주, 울산, 울산모비스, 김천, 안양)가 모였다. 첫 만남에서 노사는 공동위 운영에 관한 간단한 의견을 나누고, 공동위에서 다룰 의제를 공유했다. 특히 지회들은 **8.28(금)까지 김천공장 노동조합 인정, 현안 해결해야 공동위원회 가능하다**며 사측의 진정성 확인을 요청했다. 김천문제를 두고 나머지 노사가 함께 무언가 해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8.28(금) 2차 사전회의에서 **김천 노사**가 계약해지된 6인의 채용(9.7) 계획에 **합의**했다. 공정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고용안정을 위한 인원운영



▲ 미래발전 공정개선위원회 운영관련 합의서와 신규채용인원 배치계획(안)을 합의하고 노사 교환하는 현대모비스 김천 노사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노조 설립 후 9개월 간 진통을 겪던 노사관계에 비로소 한발 안정적 대화로 나아갈 계기가 마련됐다.

2차 사전회의에서는 노사특별공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진행원칙에 합의했다. 모비스 10개 지회는 코로나19 재난극복과 미래차 전환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매주 화요일 13시 사업장별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해 노사가 제안한 의제들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눈길에 첫발

2020년 모듈부품사 노사는 전에 없던 새길을 열어간다.

전통적인 1:1 노사관계로 우리의 삶과 미래를 논의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노조 안팎의 다른 세력의 힘이나 사법적 판단에 기대지 않고, 우리의 고민과 논의와 공동의 판단으로, 오롯이 우리의 힘으로 새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20년은 노사 모두에게 도전이다. 오늘 우리가 가는 한발, 최초가 될 모든 걸음을 소중히, 기쁘게 내딛어가자.



▲ 8.20(목) 현대위아 3사 원하청 3자 포럼 협약식이 진행됐다.



▲ 8.28(금) 2차 사전회의, 모비스 10개사 노사가 노사특별공동위원회 회의원칙에 합의, 서명했다.

재난+전환 ➡ 미래 5방향

모비스 노사특별공동위원회를 통해 노동조합이 제안한 의제는 5가지다. 모듈부품사 공동교섭을 위해 위아-모비스 모두에서 논의를 병행해 갈 예정이다.

1. 모듈부품사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공동교섭

2021년부터는 모비스-위아 모듈부품사가 공동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 공동위원회에서 함께 방법을 찾아 전환기-재난기를 함께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시작하자는 요구다.

2. 미래차위원회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삶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과정은 한 사업장에 국한된 논의로는 불가능하다. 자동차산업 변화에 따른 물량, 공정, 작업조직 변화 등 제반 사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제품변화와 작업변화를 살펴 함께 결정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자는 요구다.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비스 등 관계사 참여가 중요하다.

3. 감염병 예방과 보호

코로나19 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전 지구적인 감염병의 유행에서 노동자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자는 요구다.

4. 교대제개선위원회

평택, 충주, 천안, 김천 등 여전히 10+10 맞교대 심야노동을 하는 부품사 교대제 문제는 각 지회별 논의로 개선할 수준의 사안이 아니다. 노동자 건강권 확보, 노동시간 단축 등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교대제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요구했다.

5.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모듈부품사 공동요구 논의

각사 개별교섭의 한계는 매년 확인되어왔고, 작년에도 결국 모비스 공동간담회에서 주요 요구안을 함께 논의해 마무리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고용안정, 임금체계, 조합활동시간, 교육비의료비 지원, 상여금 지급기준 등 올해 모듈부품사연대 공동요구 또한 특별 공동위원회에서 책임있게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재난 속에도 빛나는 일상

초유의 재난 속에 현상유지 말고 별다른 게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경기지부 모듈부품4사는 경기지역 모비스-위아지회의 집단교섭 참여, 공동교섭을 요구해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교섭뿐 아니라 일상도 다양하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재난 속에도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관계를 다져가는 노력은 끝이 없다.

방구석에서 그대 품까지, 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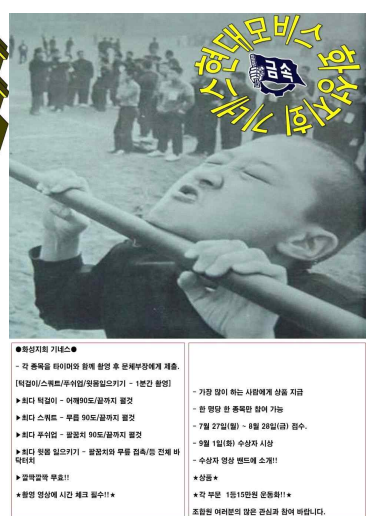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으로 요즘 지회 조합원이 다같이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예정한 체육대회도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지회 문체부에서는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시대에 맞게 다수가 모이지 않고 조합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방구석 문화제』, 『전국영상 노래자랑 화성지회 편』, 『현대모비스 화성지회 기네스』입니다.

『방구석 문화제』는 지회에서 선정한 추천도서와 영화를 읽고 감상평을 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영상 노래자랑 화성지회 편』은 조합원이 혼자 노래방에서든 집에서든 길거리(?)에서든, 마이크를 가지고서든, 생목(?)이든 노래를 부르고 영상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현대모비스 화성지회 기네스』 또한, 턱걸이, 스쿼트, 푸쉬업, 윗몸 일으키기 등의 종목을 조합원이 1분 동안 하는 장면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면 기록에 따라 선물을 전달하는 이벤트입니다. 랜선 이벤트는 7월말부터 시작해서 8월말까지 진행했고, 8월말에 수상자를 선정해 상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조합원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구석구석 왕중왕, 안산



현대위아안산지회는 일찌감치 쟁의권을 확보, 신차 양산에 따른 인원 문제, 탈의실 개선, 통근버스 개선 등 일상을 지키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 피켓 선전전을 진행하며 교섭 진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지회 문체부가 주관해 구역별로 소소한 일상프로그램 ‘초성을 맞춰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중왕전에 진출할 구역별 우승자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야나두는 영원하다, 평택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고 투쟁에 집중성과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 지회 조직부사업으로 "야나두 현장 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첫째주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시업 전, 점심시간에 전조합원 누구나 짧은 시간 안에 손쉽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이벤트입니다.

포비스 현장순회(공장 전역에 투쟁의 기운을 불어넣자!), 다트던지기, 제기차기(누가누가 잘하나), 부서별 상담소운영(노안부/조직부/임원/문체부 등 평소에 하지못한 좌판 상담), 문방구 종이뽑기(오늘의 내 운세는?), 달달한 커피 한 잔 어때요?(갈때 가더라도 시원한 커피 한 잔에 당 충전 정도는 괜찮잖아?) 열 체크 로또 (36.5도인 당신에게 건강상을 드립니다. 36.7도 36.9도인 당신에게 열일상을 드립니다).

신차양산 0고생, 안양

안양지회는 지금 카니발 신차 양산으로 현장이 정신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3주째 10분~20분씩 연장해 물량을 맞춰야 할 정도로 생산 안정화가 안 되는 와중에, 무게도 공정도 늘어난 신차 책임지느라 조합원들은 이리뛰고 저리뛰느라 밤에는 몸이 아파 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설비 고장으로 직접 모듈전체를 사람이 들어 나를 정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신차 양산 과정을 여러차례 겪어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인 와중에, 근본적 원인을 찾아 빨리 해결해야 할 사측이 ‘작업자 숙련도’를 운운하며 현장에 던지기를 하고 부서 간 갈등을 일으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회는 부서별 문제점을 조사, 정리해 이번 주 사측에 공식 제기하고 대응이 시급한 부서부터 빠른 대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